

“태풍·병충해 피해 줄이고 햅쌀 시장 선점

# 쌀 수확 9월 초로 앞당겨야

## 전남도, 내년부터 조생종 벼 재배 확산 권장

태풍 등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햅쌀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쌀 수확시기를 지금의 9월 말~10월 초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년 한반도에는 9월 중순이후 대형 태풍이 상륙해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벼 멸구 등 병충해 발생도 9월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농사 전문가들은 조생종 벼 재배를 늘리고 모내기를 앞당겨 9월 초까지 벼 수확을 끝내면 태풍과 병충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햅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

어 높은 가격에 전남 쌀 판매가 가능하며 후작(後作)으로 택사 등 소득작물도 재배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도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부터 조생종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현재 5월 20일 전후인 모내기 시기를 보통이상 앞당겨 줄 것을 농민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도 조생종 벼 재

배 교육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밥맛이 좋은 조생종 품목인 운광벼를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또 조생종 벼 확대 재배를 위해 100ha 규모의 고품질 햅쌀 시범재배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전남지역은 전국 벼 생산량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나 조생종은 8천 640ha로 도내 전체 재배면적의 4.6%에 불과하다. /송기동기자 song



## ‘탐진(耽津)-탐라(耽羅)’ 하나 되다

제주시 돌하르방 2기 강진군에 기증 제막식... 양 지역 교류 강화

강진군과 제주시 간 교류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일 강진 마량항에는 양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돌하르방 제막식이 열렸다. <사진> 높이 2m와 1.6m의 돌하르방 2기는 제주시가 제작해 강진군에 기증했다.

마량항은 조선시대 제주도에서

공출된 조랑밭을 관리하는 목마장이 설치되는 등 40여년전 까지도 제주도와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김영훈 제주시장은 “이번 돌하르방의 마량항 제막을 계기로 양 지역간 유대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황주홍 군수도 “마량항을 제 2의 제주로 조성하

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강진 상정 조형물을 제주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와 강진군은 지난해부터 마량~제주간 고대 뱃길을 재현하는 뗏목탐험행사를 열었고 제주마생산지 협회가 기증한 제주산 말 2마리가 마량 속마마을에서 사육되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 장흥 국민임대아파트 300여가구 전립

### 장흥읍 간산리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30년 장기 임대

장흥군에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세워진다.

장흥 국민임대주택단지는 36㎡(17평형)와 46㎡(20평) 등 5개 동 318 세

대 규모로 장흥읍 간산리 688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서

민들에게 30년 장기 임대조건으로 분양된다. 국민주택금 117억원을 포함해 312억4천만원이 투입되며 토지매입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2년 말 준공 예정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노인정 등 300여곳 '사랑의 김치' 전달 LG화학 나주공장 봉사단

LG화학 나주공장 사회봉사단(대표 구자춘 공장장)이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LG화학 나주공장 사회봉사단과 사원가족 등 100여명은 지난 5일 '사랑의 김장 김치 1004 포기'를 담가, 노인정과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300여세대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김장 담그기에는 외국인 주부 60여명도 참여해 이웃사랑 실천에 힘을 보탰다.

LG화학 나주공장은 매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자춘 공장장은 “지역 내 소외받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시동'

### 영광군 '축산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준공

### 유기질 비료 등 만들어 친환경농산물 생산

가축 분뇨가 유기질 비료로 재탄생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쓰인다.

영광군은 지난 4일 영광읍 우평들에서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친환경 유기질 비료 생산에 나섰다.

공동자원화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가축 배설물이 퇴비와 양질의 액체비료로 탈바꿈 돼 800ha의 농경지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료로 사용된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각각 7억 5천만 원과 융자 10억 원이 투입돼 인근 양돈 농가에서 사육되는 8만 마

리의 돼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로 1일 100t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다. 수익금은 양돈 농가 분뇨 1t 당 1만 원을 가져가고 농산물 생산 농가는 퇴비 생산비 절감과 농산물 판매로 인한 이득을 얻게 된다.

이 시설로 연간 3만 5천여 t의 분뇨를 수거해 2만 5천 t의 비료를 생산, 연간 3억여 원의 수익을 올리는 한편 악취로 인한 민원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구례군 '맞춤형 보건사업'

### 장애인·독거노인 대상 의료진 직접 방문 진료

구례군이 지난 4월부터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의료취약계층 2천878세대를 1순위부터 6순위까지 구분해 의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 산림청 가로수 평가

### 화순군 '최우수'

화순군이 올해 가로수 분야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화순군은 산림청이 최근 실시한 '2007년 전국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분야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상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 화순군은 이번 평가에서 국도 등 66개 노선 303km에 심어진 7종 5만4천여 그루의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화순=조성기기자 css@

**2008 새해 정동진 해돋이 전세열차**

1월 1일 (토) 10시 30분 출발 / 1월 2일 (일) 10시 30분 도착

1인당 10만 원 (1인당 10만 원) / 1인당 10만 원 (1인당 10만 원)

(주)대원여행사 ☎ 062) 265-7000 / Fax 075-7777

**겨울방학 불리민 영아캠프**

1월 15일 ~ 1월 25일 / 1월 15일 ~ 1월 25일

1. 영아캠프 100% 참여  
2. 영아캠프 100% 참여  
3. 영아캠프 100% 참여

1월 15일 ~ 1월 25일 / 1월 15일 ~ 1월 25일

**저울 뽀뽀 고민 끝~**

초절전형 냉난방기 **리쓰 리방** 하자!

무료부품서비스

1. 리쓰리방 100% 참여  
2. 리쓰리방 100% 참여  
3. 리쓰리방 100% 참여

최대 80% 할인

080-372-2000